

“봉원사 도난문화재 되돌려 달라”

조계·태고종, 국가 대상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공동 제기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서울 신촌 봉원사의 도난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8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98점의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도난당한 이들 문화재는 2000년 도굴단이 검거됨에 따라 현재 국가에 압수되어 있는 상태다.

2000년 당시 국가가 도굴단에게서 압수한 문화재는 수백여 점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 봉원사는 문화재의 도난 여부조차 알지 못했다. 범행이 워낙 완벽했던 데다, 복장유물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소장에는 조계종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과 태고종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대상에는 <능엄경 언해본>을 비롯한 금사경과 다라니경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봉원사는 현재 법적으로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권은 태고종에 귀속되어 있는 이른바 ‘분쟁 사할’ 상태다. 조계종과 태고종 두 종단 모두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잡음이 여러 차례 일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함께 힘을 모아 문화재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서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복장유물이 도난당한 사실과 검찰에 의해 압수됐

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도난당한 불교의 성보(聖物)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문화재보존에 대한 연대책임의 중요성을 느껴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8월 8일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4일 참고자료를 제출했으며 20일 피고인인 대한민국에 소송안내서가 발송돼 23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9월 20일경 종 회신이나 결정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송이 승리하게 되면 해당 문화재는 신촌 봉원사에 모셔지게 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8월 27일 부산 동명불원 앞마당에서 열린 ‘어르신 초청 큰잔치’에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백중,孝敬신 되새기는 날로”

부산 동명불원 ‘어르신 초청 큰잔치’ 개최

부산 동명불원(주지 정산)이 백중 회향을 맞아 ‘동명 어르신 초청 큰잔치’를 열었다.

8월 27일 동명불원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산 스님은 이번 행사를 맞아 “백중은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가를 천도하며 효를 실천하는 날일 뿐 아니라 효 정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날이다”며 “이번 행사를 맞아 효를 실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사물놀이와 양반춤, 장가차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동명선원은 9월 7일과 15일 수험생을 위한 무료 입시특강을 마련한다. 9월 7일 오후 1시에는 매가스터디 교육연구소 이석복 소장이 출제경향분석, 입시전략 및 요령을 소개한다. 15일 오후 1시에는 사찰음식연구회장 홍승스님이 수험생에게 맞는 사찰 건강 음식을 소개한다. 11월 10일 오후 9시에는 합격기원 촛불기원법회도 열린다.(051)626-4337

‘탱화로 보는 불교 우주관’ 특강

8월 26일 부산 흥법사(주지 삼산)는 신웅철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초청해 ‘탱화로 보는 불교 우주관’이라는 주제로 대중 특강을 열었다.

신씨는 “불교문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불교회화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존해 나가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미술의 제작법과 전통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주최한 흥법사 청년회는 앞으로 9월 9일과 10월 14일 각각 오후 2시에 걸쳐 총 3차례에 걸쳐 대중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051)508-0345

하성미 기자

일함미술사연구원 수강생 모집

일함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이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5일 개강하는 수업반은 ‘한국미술사 개론’을 주제로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구려 기와에 대해 알아본다.

9월 6일 개강하는 목요일반은 ‘한국미술사 특강’으로 꾸며진다. 강의는 11월 8일까지 오후 7시에 열린다. 고려시대 건축과 단청에 대해 인문학적 미술사학적으로 접근해 살펴보고, 회화나 조각에 관한 특강도 마련된다. 수강료 어른 30만원, 학생 20만원.(02)363-1114

여성주의 상담 주제 월례 특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9월 12일 오후 4시 조계사교육관 2층 제4강의실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주제로 월례 특강을 개최한다.

여성주의 상담이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개발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상담기법을 말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담을 실시해 자신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강은 상담심리사인 전나미 아하섹스 상담원장이 맡는다.(02)737-8808

상원사, 대웅전 낙성식 봉행

양평 상원사(주지 호산)는 9월 13일 오후 3시 대웅전 낙성식 및 제7회 산사음악회 ‘상원사 맑은 물소리’를 개최한다. 오후 3시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한 후 오후 7시에 산사음악회가 펼쳐진다.

상원사와 양평사암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음악회에는 가수 덕림 스님과 심진 스님을 비롯해 장사익, 현영애, 이종만,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 아프리카 무용단 아난카(AANINKA) 등이 흥겨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031)773-4634

“동산문화재 훼손 막자”

문화재청, 보존·관리 교육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5일 오전 9시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강당에서 동산문화재 소장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반 동산문화재의 공개 활성화에 따른 문화재 도난 및 훼손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장자와 관리자의 보존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순회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 소장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류·회화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방법과 도난방지 예방법 등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화재 소장·관리자뿐 아니라 문화재 관련 업무종사자, 문화재 보존관리방법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042)481-4917

여수령 기자

‘禪문화’대중 속으로

범주 스님 ‘부산 선 문화센터’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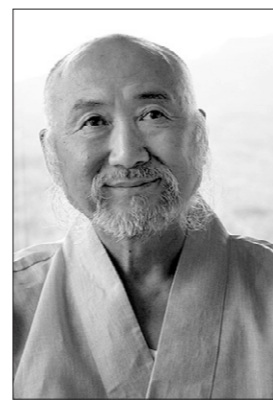
2005년 부산 APEC 때 범주사에서 달마 포퍼문으로 세계의 영부인들을 놀라게 했던 범주 스님(사진)이 부산 금정구에 ‘부산 선 문화센터’를 개원한다. 개원 법회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범주 스님은 “선과 예술을 한 길로 추구해 왔다”며 “대중 가까운 곳에서 깨달음의 바를 나누고 함께 수행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선문화 센터를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찍 보면 화랑과 같은 분위기를 내는 선문화 센터는 특별한 장식을 하지는 않고 담백한 공간의 맛을 최대한 살렸다.

범주 스님은 매월 1·3주 일

요일 오전 10시에 정기 법회를 봉행하며 1·3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에 선에 관한 강의 및 수련 시간을 마련한다. 또 선다도(禪茶道)를 통해 ‘생활 속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도 수업도 진행하고 선목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범주 스님은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한 정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생활과 선이 하나가 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진리라는 것은 시공이 없지만 형식과 방법이 그 시대의 공간에 따라 사람에게 맞도록 변해야 한다”며 포



교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범주 스님은 197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선목화 초청전 및 퍼포먼스로 선목화를 알리고 자비의 집과 국제선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를 개최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만해 축전 기념 초대전 등에도 참여했다.(051)518-5900

하성미 기자

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

탄생 1212년 추모헌다례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의 탄생 1212주년을 맞아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가 9월 8일 ‘제10회 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 성도 및 추모 헌다례’를 봉행한다.

백천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헌다례 및 ‘지장왕보살 큰축제’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 기념사업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오전 11시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영화 ‘구화산의 신화, 김교각 스님’ 상영에 이어 월운 스님(봉선사 주지)의 법문이 마련된다.

교각 스님 행장 및 지장보살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펼쳐진다. 무구 스님은 “신라의 왕자로서 구화산 지장성지를 개창하신 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의 뜻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031)577-6433

여수령 기자

익산 제석사지 발굴조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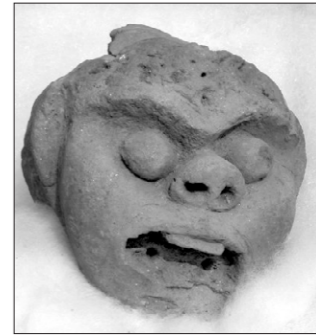
문화재청, 2009년까지 진행

백제시대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8월 30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에서 개도제를 개최했다. 발굴은 오는 2009년까지 계속되며 사역 중심부인 목감지와 금당지, 강당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백제 30대 왕인 무왕(600~641년)이 수도를 금마로 옮기기 위해 세운 왕실 절로 추정되는 제석사지는 <관세음원경기(觀世音應驗記)>에 의하면 정관 13년(639)에 세워져, 같은 해 무후로 인해 불당과 낭방(廊房) 등이 모두 불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제석사지 출토 소조석의상.

1993년 제석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해, ‘제석사(帝釋寺) 명(銘)’ 명문과와 백제 당초문 입막새를 비롯한 7세기 당시의 기와를 다량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불에 탄 소조불상과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석청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땅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은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질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아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물어오고, 힘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악취가 뿜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正品供給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소매통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인근후 2일 이내 배송)

KOREA 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I227@hanmail.net